
채굴주의에 맞서는 환경주의 흐름

에두아르도 구디나스

몬테비데오 라틴아메리카사회환경센터(CLAES) 연구원

원제와 출처: Eduardo Gudynas, "Los ambientalismos frente a los extractivismos,
Nueva Sociedad, No. 268, marzo-abril de 2017, pp.110-121.

핵심어: 환경주의, 발전, 채굴주의, 포스트채굴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오늘날은 환경 논쟁 확산의 시대이다. 그래서 채굴주의(extractivismo)에 대한 비판이 그 표현 양상의 하나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환경 논쟁의 시작은 실은 적어도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세계적인 논쟁과 발맞춰 경제성장에 대한 생태적 제약, 야생 동식물의 훼손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논의들이 자리 잡았다. 또한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환경보호 조직들이 꾸려졌고, 생태와 보호에 대한 선구자적인 연구들이 나타났으며, 정치권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환경주의는 복수적인 관점이 존재하는 장이 되었다. 개혁주의 관점이

있는가 하면 급진적 관점도 있었고, 테크노크라시적인 관점이 있는가 하면 정치화된 관점도 존재했다. 그런 관점들로 인해 광산과 유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최초의 고발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현재의 논쟁들과 다를 바 없이 1970년대에도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론적 제약들을 두고 제기된 우려들은 정부, 정치인, 학자, 기업의 저항에 직면했다. 이 주체들은 경제성장을 개발의 중심 목표로 옹호했고, 환경적 측면을 최소화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동력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 절정에 달했다. 주제의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했고(예를 들어 환경 경제학이나 환경 윤리 같은 주제가 더해졌다), 시민사회와의 연결성이 확장되었으며 녹색당들의 실험이 시작되었다.¹⁾ 광산 채굴이나 석유 시추작업의 결과에 대한 고발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전략으로서의 채굴주의를 중심 문제로 설정해야 할 필요도 없었다. 오히려 다양한 환경적 영향의 원인으로 이해했을 뿐이다.

1990년대가 깊어감에 따라 그런 동력은 약화되었다. 보수적인 정치 상황이 우세해지고 시장에 초점을 맞춘 개혁들이 급증했으며, 환경론 중에서도 경제성장에 대한 기능적 입장이 확산되었다. 이 기능적인 환경론 관점들은 소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채굴산업 부문 기업주에게 자기조절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굴주의의 출현과 새로운 환경론적 비판

21세기 초에는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심각한 환경 파괴의 증거들과

1) 환경주의를 다룬 두 권호의 『누에바 소시에다드 *Nueva Sociedad*』에서 그런 논의의 좋은 예시를 볼 수 있다. 1987년의 87호에서는 “환경(적인 것)의 정치성과 사회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 호에는 라틴아메리카 환경주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담겨 있다. 그 이후 ‘에코 1992년’ 시기에는 122호에서 “환경의 정치적 도전”이라는 주제를 시도했다. 이로써 해당 주제에 대해 한층 더 발전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 학술지의 두 권호는 (www.nuso.org)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구 생태변화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들에서 가능한 모든 채굴 작업이 거세졌다. 거대 노천광산 프로젝트들과 특히 열대지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이 시작되었다. ‘프랙킹’ 공법 (드릴로 뚫는 공법)이 허용되었고, 단일작물 재배에 사용되는 경작면이 과도하게 늘었다.

동시에 개념이 정밀해졌다. 곧, 천연자원을 대규모 또는 높은 집약도로 취득하여 대부분의 경우 원료로 개발하는 방식을 채굴주의라고 정의하게 되었다.²⁾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높은 원료 가격이라는 특수 상황, 채굴산업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의 가용도, 그리고 특히 중국 발 수요의 지속성 등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채취 규모, 특히 광물, 탄화수소, 곡물 등의 채굴 규모가 거대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무역적자(천연자원의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것으로, 광물자원이나 곡물자원을 톤이라는 물리적 단위로 계산한 것)는 1980년에 증가했고, 2005년에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7억 톤 규모에 이르렀다. 제일 규모가 큰 채굴 국가는 브라질이다. 브라질은 2010년 무렵 약 5억 톤의 천연자원을 개발한 것으로 추산된다.³⁾

거대 노천 광산업과 같은 활동들은 생태적인 파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페루 북부의 야나코차(Yanacocha) 광산은 해마다 1억 8천만 톤을 파내고 있는데, 온갖 종류의 오염물질이 사용되고 있다(채광에 사용되는 여러 유해물질들,

2) 이 정의는 E. Gudynas, *Extractivismos. Ecología, economía y política de un modo de entender el desarrollo y la naturaleza*, CEDIB/CLAES, Cochabamba, 2015에서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개념 공식화는 이전의 채굴론 개념들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취득 방식(modos de apropiación)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따라서 국영, 민영, 그리고 혼합적인 경제주체(기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세계화와 명백한 연계성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채굴주의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산업이다. 익히 알려진 광산이나 석유의 경우뿐만 아니라 농업, 산림업, 수산업 등의 부문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3) Pablo Samaniego, María Cristina Vallejo y Joan Martínez-Alier, “Commercial and Biophysical Deficits in South America, 1990–2013,” *Ecological Economics* vol. 133, 3/2017.

단일작물 재배지역의 탄화수소 누수와 유출 및 독성농약의 살포 등). 그러므로 채굴산업은 매우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내포하고 있고 그 영향은 광범위한 면적에 미치고 있다. 이를 줄이거나 보완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으며, 글로벌 시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실행한다는 것도 매우 어렵다.⁴⁾

또한 심각한 지형 변화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난다. 개발양허권이나 농축산업의 경계 확장 허가권도 강제되고, 사회 공공시설 공사들이나 에너지 조달 공사들(아마존 지역의 거대 수력발전 댐들이 그 경우다)도 못지않게 중요해진다.

이에 대한 온갖 종류의 경고와 문제제기가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촉발되고, 예외 없이 라틴아메리카 국가 전역에 수많은 지역공동체들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생물다양성의 상실에 대한 정보, 토양과 수질, 인체에 미치는 오염성에 대한 정보, 폭력성의 증가에 대한 정보 등이 순식간에 대규모로 축적되었다. 환경주의 역시 특히 농촌 원주민 공동체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결과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에 가담했다. 그에 따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통적인 경제 활동의 파괴 등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다.

국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 가지 결과(환경, 토지, 사회)에서 비롯되어 여타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 대한 소위 '누수 효과'를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그리고 특정한 채굴 사업들의 사례에 한정되는 범위를 넘어섰다). 누수 효과로 인정되는 예시를 들자면, 경제 효과(조세제도의 변화나 해당 부문의 자본흐름에 대한 통제 등과 같은), 무역 효과(개별 국가에 대한 무역개입, 물품 공급에 대한 지역 공조의 불가능성과 같은)가 있었고, 연이어 다른 부문들까지 그 결과가 이어진다.⁵⁾

4) E. Gudynas, op. cit.

이러한 논쟁들로 인해 정의, 민주주의 등과 같은 근본적인 범주의 개념들을 재고할 수밖에 없어졌다. 첫째, 많은 이들은 환경의 정의 없이는 진정한 사회적 정의가 불가능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극빈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들이 오염된 지역에 계속 거주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둘째, 채굴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민주주의 위반은 정보 접근의 방해나 시민들의 간담회 방해에서부터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의 용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채굴주의는 정치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상이한 방식으로 조직화되었다. 즉, 보수 정부의 집권 하에서는 시장에 유리하도록 자유주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가 하면 진보주의 정부 하에서는 더 큰 국가적 통제가 실행되었다(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겠다). 겨우 몇 년 사이에 ‘채굴주의’라는 용어가 대중화되었고, 이는 도시의 채굴, 금융의 채굴, 인식론적 채굴 등과 같이 모든 종류의 상황에 적용되었다. 그 결과 쟁점화 확산에 기여하긴 했지만, 동시에 논의의 정확도가 상실된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기업들과의

5) 여러 국가들의 경우에 대한 최신 연구들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글들이 있다. William Sacher y Alberto Acosta, *La minería a gran escala en Ecuador. Análisis y datos estadísticos sobre la minería industrial en el Ecuador*, Abya Yala/ Universidad Politécnica Salesiana, Quito, 2012; José Seoane, Emilio Taddei y Clara Algranati, *Extractivismo, despojo y crisis climática. Desafíos para los movimientos sociales y los proyectos emancipatorios de nuestra América*, Herramienta, Buenos Aires, 2013; Emiliano Terán Mantovani, *El fantasma de la Gran Venezuela. Un estudio del mito del desarrollo y los dilemas del petro-Estado en la Revolución Bolivariana*, Celarg, Caracas, 2014; Pablo Villegas N., *Geopolítica de las carreteras y el saqueo de los recursos naturales*, cedib, Cochabamba, 2013; Gian Carlo Delgado-Ramos, *Ecología política de la minería en América Latina*, UNAM/CIICH, Ciudad de México, 2010; Maristella Svampa y Mirta A. Antonelli (eds.), *Minería transnacional, narrativas del desarrollo y resistencias sociales*, Biblos, Buenos Aires, 2009; Catalina Toro Pérez, Julio Fierro Morales, Sergio Coronado Delgado y Tatiana Roa Avendaño (eds.), *Minería, territorio y conflicto en Colombia*, Universidad Nacional, Censat, Bogotá, 2012; Andréa Zhouri, Paola Bolados y Edna Castro (eds.), *Mineração na América do Sul. Neoextrativismo e lutas territoriais*, Annablume, San Pablo, 2016. 다양한 디지털 서지들을 소장한 도서관은 <www.extractivismo.com>를 참고할 것.

논쟁을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했다. 왜냐하면 기업이나 정부 측에서는 천연자원의 사용은 모두 채굴주의의 형태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환경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예를 들어 내수용 시장에 공급하는 농부의 영향과 수출용 단일경작이 갖는 충격은 동일하지 않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이와 유사한 일이 신채굴주의 개념에서도 일어났다. 원래의 개념은 “새로운 진보주의 채굴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수주의 정부들의 관점과는 상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단어 또한 대중화되었고, ‘신(neo)’이라는 이 접두사가 최근의 채굴주의를 모두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적용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또 환경주의적 비판을 광산업 반대나 석유시추 산업에 대한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반(anti)’라는 수식어가 최대한 과장된 채 정부나 기업,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옹호하는 학자들에 의해 과용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념 규정의 엄밀성이 또다시 핵심이 되었다. 가령 시민 사회의 문제제기는 채굴주의에 대한 반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채굴주의가 광산업이나 농업의 동의어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특징을 하나 더 들자면,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채굴산업에 대한 비판이 이런 유형의 개발을 벗어날 대안들을 제기하는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안들은 ‘포스트채굴주의(postextractivismo)’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포스트채굴주의는 특히 페루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페루에서는 10년 전부터 포스트채굴주의적 전환이 논의되어 왔다.

채굴주의와 좌파의 분열

앞서 제기한 것처럼 어떤 나라에서는 보수 정부들이 신좌파를 향해 개발주의에 대한 환경문제를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환경주의 세력들은 그러한 변

화를 지지하고 가담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⁶⁾ 수많은 환경 활동가들이 새로운 정부에 자리를 차지했고, 몇 가지 환경 문제에 정치적 관심이 강화되도록 했고, 나아가 개혁을 이루어내기도 했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를 들자면, 에콰도르 헌법에서 자연권을 통과시킨 일, 기후 변화 경고를 위해 볼리비아 정부가 또 다른 논리를 창출한 일 등이 있다. 또한 메스티소 활동가였던 마리나 실바(Marina Silva)가 브라질 환경장관으로 임명된 일과 같은 상징적인 제스처도 있었다.

그러나 환경주의 전선에도 금방 난점이 드러났다. 새로운 정부들은 채굴주의를 지속할 뿐 아니라 더욱 강화했다. 환경 관리나 제도화는 뒤로 밀려났고, 기존의 문제들(환경에 대한 고려의 미약성, 시민 간담회의 미이행 등과 같은)이 반복되었다. 심지어 좌파 정부가 시작한 환경을 위한 선행 조치들이 중단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서는 정부가 스스로 자연권이 '추정적인 권리'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볼리비아의 경우 정부는 기후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으나, 국내적 조치에 있어서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가스 배출을 여전히 방임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에서는 단일작물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 GMO 종자를 방출했다. 이 모든 국가들에서는 채굴주의의 충격적인 결과에 대한 정보와 사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었다. 특히 물과 토양의 오염에 대한 사례와 정보가 많았다. 1970년대에도 그랬듯이 정부가 나서서 환경 파괴의 증거를 축소했고,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시도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6) 여러 환경주의 인물들은 에콰도르의 알리안사 파이스(Alianza País), 볼리비아의 사회주의운동(MAS), 브라질의 노동자당(PT), 우루과이의 프렌테 암플리오(FA), 그리고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Fernando Lugo) 대통령을 지지했다.

좌파 정부들은 민주주의의 급진화나 인권 개념의 심화와 같은 여타 사상들과 더불어, 환경적 정의를 위해 처음에는 도박을 걸었다. 그러나 일단 정권을 잡게 되자 원래의 여러 목표들을 방기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개발주의에 간히고 말았다. 채굴산업에 따른 원료의 수출이 이러한 태도 변화의 연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좌파와 진보주의는 서로 다른 정치적 기획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환경주의는 이러한 분열을 가시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구별은 몇몇 환경주의 정부 사이에 실행된 개혁의 결과였다. 많은 인습적인 비판들은 진보주의에 맞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정부들의 집권 아래 국영기업들이 몇몇 산업부문에서 커다란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에 진보적 채굴주의가 다국적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고발할 수도 없었다. 나아가 진보주의자들은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채굴산업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단순화 담론은 강력한 시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채굴산업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는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환경론적 비판은 발전 전략, 국가의 역할, 국가의 정치적 함의 등에 대한 재검토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가장 최근 논쟁들을 일일이 여기서 다룰 수는 없지만, 진보론적 국가 전략들이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점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한 국영기업들의 사회적, 환경적 역할이 거의 언제나 부정적이었던 사실과, 천연자원의 수출과 사회 구제사업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거대 프로젝트들에서 환경, 토지, 사회에 미친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는 사실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가 시민사회 참여의 차단, 사람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 및 조장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났다. 극히 최근에는 법적인 부패나 채굴주의 프로젝트 상의 부패 사례들이 가면을 벗고 폭로되기도 했다. 이렇게 채굴주의에 대한 환경론적 비판은 다중적 결과를 낳았고, 이는 생태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여타 정당한 사유들이 있긴 하지만 진보주의가 또 다시 원자재의 공급자라는 종속적 역할에 빠지게 되고, 환경적, 사회적 결과를 외인적 문제로 만들었다는 점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주체들, 목소리들, 경향들

환경론과 채굴주의 사이의 균열에 초점을 둔 주체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그들은 국지적 단체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단체들의 조직화 정도는 매우 상이하다. 원주민 농민 공동체에서부터 환경, 인권, 보건 등을 위한 활동 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반 채굴주의 운동에서 여성들의 리더십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여성들은 환경오염을 목인하는 대신 경제적 보상을 받는 문제에서도 가장 저항적인 주체들이다.

캠페인과 분석 작업을 결합시키는 시민단체라는 광범위한 집합체들도 상당히 가시화되었다. 에콰도르 생태행동(Acción Ecológica en Ecuador)과 같은 환경주의 NGO가 있는가 하면, 볼리비아 정보자료센터(CEDIB: Centro de Documentación e Información Bolivia)와 같은 정보 분석 기관도 존재한다. 채굴주의 평가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들도 있는데, 가장 좋은 예가 페루의 협력행동(CooperAcción)이다.⁷⁾ 이 단체들은 국내적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라틴아메리카 대륙에 걸친 네트워크를 갖춘 것도

7)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 참조할 것. <www.accionecologica.org>, <www.cedib.org>, <<http://cooperaccion.org.pe>>.

있다. 국내적 네트워크의 예시로는 ‘광산업을 위한 멕시코네트워크(REMA: Red Mexicana de Afectados por la Minería)’, ‘광산, 환경, 공동체를 위한 페루 무키 네트워크(peruana red Muqui sobre minería, ambiente y comunidades)’가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걸친 네트워크에는 ‘반 채광산업 모델을 위한 메소아메리카운동(M4: Movimiento Mesoamericano contra el Modelo Extractivista Minero)’과 ‘라틴아메리카 광산 갈등 전망대(OCMAL: Observatorio de Conflictos Mineros de América Latina)’가 두드러진다.⁸⁾ 채굴주의를 중심테마로 삼아 사안별, 부문별 네트워크가 형성된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권·환경권보호 라틴아메리카 여성연대(Red Latinoamericana de Mujeres Defensoras de Derechos Sociales y Ambientales)’와 세계적인 종교단체인 ‘교회와 광산 네트워크(Red Iglesias y Minería)’다.⁹⁾

이 집단적 조직화에는 환경주의 논쟁들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기여와 참여가 존재한다. 이들은 출신과 노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보는 게 필요하겠다. 에콰도르의 알베르토 아코스타(Alberto Acosta)는 환경보호론 관점을 갖는 경제학자로, 여러 시민운동에 동참했다. 그는 에콰도르 제헌의회 의장을 맡아 자연권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고, “부엔 비비르(Buen vivir)”의 관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활동을 한 뒤에 그는 환경주의 토론회의 주요 사회자가 되었다. 페루의 마르코 아라나(Marco Arana)는 매우 상이한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가톨릭 사제였던 그는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에 맞서는 시민적 저항에 가담했고, 기업과 정부의 가혹한 탄

8)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 참조할 것. <www.remamx.org>, <www.muqui.org>, <<http://m4.mayfirst.org>>; <www.conflictosmineros.net>.

9) 더 많은 정보는 다음 사이트 참조할 것. <www.redlatinoamericanademujeres.org>, <<http://iglesiasymineria.org>>.

압을 극복하고 사회적, 환경적, 정치적 실천을 향해 나아갔다. 콜롬비아에는 마누엘 로드리게스 베세라(Manuel Rodríguez Becerra)가 있다. 그는 대학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환경부 장관이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학교로 되돌아갔다. 대학에 머무는 동안 그는 시민단체들과 조금씩 관계를 맺었고, 결국 채굴주의에 대해 경고하는 독립적이고 존경받는 메신저가 되었다. 채굴주의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아이콘이 된 수많은 지역 단위 리더들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페루의 막시마 아쿠냐(Máxima Acuña)가 그러하고, 온두라스의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처럼 채굴주의로 인한 폭력에서 목숨을 잃은 리더도 있다. 온두라스의 렌카(Lenca) 원주민 리더이자 여성주의자, 환경론자였던 그녀는 2016년 암살당했다.

이 사안들에 대해 사유하고 시민운동에 동참하는 지식인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¹⁰⁾ 아무튼 학술적인 공간에 긴장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 저널을 통해, 영어로, 로컬 정치보다는 참고문헌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논쟁에서 우위를 점한 또 다른 대학교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틴아메리카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되 라틴아메리카 현지에 존재하는 개념 논쟁을 축소하는 북미 연구자들까지 고려하면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지적 기여를

10) 이미 언급한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식인들을 꼽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마리스텔라 스밤파(Maristella Svampa), 오라시오 마차도(Horacio Machado), 미르타 안토넬리(Mirta Antonelli), 가브리엘라 메를린스키(Gabriela Merlinsky), 호세 세오아네(José Seoane), 볼리비아에서는 오스카르 캄파니니(Oscar Campanini), 마르코 간다리아스(Marco Gandarillas), 헤오르히나 히메네스(Georgina Jiménez), 세실리아 레케나(Cecilia Requena), 파블로 비에가스(Pablo Villegas), 브라질에서는 안드레아 조리(Andréa Zhouri), 브루노 밀라네즈(Bruno Milanez), 콜롬비아의 카밀라 토로(Camila Toro), 페루의 호세 데 에차베(José de Echave), 카를로스 몽헤(Carlos Monge), 마르틴 스큐라(Martin Scurrah), 베네수엘라의 에밀리아노 테란 만토바니(Emiliano Terán Mantovani), 에드가르도 란데르(Edgardo Lander), 멕시코의 Gian Carlo Delgado, 또한 라틴아메리카 출신이 아니지만 라틴아메리카 활동가들과 긴밀히 대화하고 시민들의 운동에 대해 연대하는 지식인들의 지원도 있다. 바르셀로나 대학의 명예교수 호안 마르티네스 알리에르(Joan Martínez Alier)가 그 대표적인 예다.

통해 채굴주의와 환경보호라는 사안들에 진지한 접근을 시작한다는 듯 인식론적 우월감의 태도를 보인다.

논쟁의 상황은 서로 대조적인 양상을 띠었다. 안데스 국가들은 더욱 활성화된 운동들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더욱 강력한 논쟁이 표출되는 반면,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는 채굴산업에 대한 환경론적 문제제기가 훨씬 미약하고 제한되어 있다. 이 양극단 사이에 중미 국가들과 코노수르 국가들이 정도를 달리한 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서는 채굴주의 사업이나 연계 프로젝트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운동들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있다. 천연자원(특히 수자원) 보호를 위한 전국적인 시위행진이 진행되었고, 주요 언론들에서는 이를 환기시키는 거센 토론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환경주의 조직들의 요구 사항이 다른 종류의 단체들, 가령 원주민의 인권이나 연합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결합하기도 한다. 학자들의 지적 기여는 더욱 가시화되었다. 많지도 않은 NGO 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언론도 이에 대해 반항하고 수용한다.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에서는 채굴산업 공사에 반대하는 중요한 시위들이 국지적 범위에 국한되어 진행되기도 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구체적인 채굴 작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 전반에 대한 시위도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시민사회의 논의과정이 정착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광범위한 정치적인 논의들과 결합되기도 하고, 그 결과 더욱 더 확산되기도 한다. 멕시코, 콜롬비아 및 여러 중미국가의 환경주의 시위들은 인권의 보호, 환경운동가 암살이나 그 외 여러 형태의 폭력에 대한 고발 등과 결합되어 전개된다.

반대로 브라질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저항과 시위가 특히 국지적이었고, 전국적인 차원의 공고한 협력을 정착시키지 못했다. 가령,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서는 멀리 외떨어진 지역에서 출발하여 수도까지 이동해 가는 천연자원

보호를 위한 시위행진이 있었지만, 브라질에서는 이런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안데스 국가들에서는 진보론적 채굴주의의 정치, 경제적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반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대규모 NGO도 수많은 학자들도 집권 노동자당에 맞설 만한 독립성을 달성하지 못했고, 따라서 비판력을 키우지 못했다. 안데스 국가들에서는 광산 모라토리엄이나 석유 모라토리엄에 대한 논의가 정착된 반면, 브라질에서는 광산 법 개혁이나 해상 유정 개발을 놓고 다양한 수준의 특허사용권이 논의된 정도다. 이러한 상황은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위기와 2015년 미나스제라이스의 마리어나 광산 댐의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변화를 맞은 듯하다.¹¹⁾

아무튼 채굴산업에 대한 환경론적 비판이 달성한 중요성은 그 비판이 유발한 반작용의 강도가 큰 만큼 더욱 선명해졌다. 안데스 국가 기업들은 광산업 부문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채굴주의에 대한 비판과 포스트채굴주의적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¹²⁾ 정치적 압박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페루처럼 보수 정권이 집권한 국가의 장관들은 급진 좌파적 환경주의자들로 인해 투자와 경제 성장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진보주의 국가들에서는 종종 이들을 ‘유아적 좌파’ 또는 ‘우파적 실용주의’라고 부르며, 단체들의 폐쇄를 도모한다. 볼리비아에서는 논쟁이 매우 심각해져 부통령이 직접 언론을 통해 정례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그는 채굴주의 논쟁이 “카페에 앉은 가짜 좌파”의 일부라는 논리를 지지하는 다섯 개 이상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다니며 순회강연을 열기도 했다.¹³⁾

11) A. Zhouri, P. Bolados y E. Castro (eds.), op. cit.

12) Álvaro Ponce Murriel, *Minería moderna para el progreso de Colombia*, Cámara Asomineros ANDI/ Cámara Colombiana de Minería/ Federación Nacional de Productores de Carbón, Bogotá, 2014.

13) 강연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할 것. <www.youtube.com/watch?v=dez7xtbjt8u>.

진행 중인 논쟁

채굴주의에 대한 환경주의적 문제제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 기세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확장되어 왔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이해나 실천을 둘러싼 논쟁이나, 발전 개념에 대한 논쟁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기반 운동들과도 새로운 대화를 조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특히 농촌 공간의 원주민 단체나 농민 단체들과도 새롭게 대화를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도 존재하는데, 가치문제를 둘러싼 것들이 많다.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전략 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깨닫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인간만이 가치의 주체이고 자연은 가치의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태도는 진보론의 다양한 변이형들을 수용하고 채굴주의도 수용하게 한다. 한편, 포스트채굴주의적 대안이 자연권의 인정에 교감할 수 있게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본원적인 가치들을 인간의 가치가 아닌 데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모든 근대성 전통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 포스트채굴주의는 포스트자본주의적이고 포스트사회주의적인 대안들이 자라날 수 있게 해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채굴주의에 대한 환경론적 비판의 장은 바로 사회와 정치, 자연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양식들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 이루어지는 지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조영실 옮김